

##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 주간충현

###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 •이주일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장17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 여름계절학교 계속 진행

### 말씀배우며 전도하는데 모두가 힘써야

교육위원회 산하 24개 부서 중, 지난주간 6개 부서가 여름성경학교 및 수양회를 끝냈고 계속해서 이번주에도 계절학교가 계속 진행된다.

사랑부(부장/이종석장로)는 제1회 여름성경학교를 24일부터 25일까지 소석관 107호에서 갖는다.

「말씀과 순종」이란 주제로 김정자 전도사가 주강사이다.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는 24일부터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충현기도원에서 가지며, 중등부(부장/엄필성장로)는 26일부터 충현기도원에서 각각 개최한다.

또 7월31일부터는 고등부(부장/최무길장로)가 충현기도원에서 3박4일간 「내 몸예수 그리스도만」이란 주제로 개최하며, 에카다부(부장/박인세장로)는 20일~21일 베다니홀에서 제1회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힘써 배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가졌다.

전 성도의 계속적인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다.

### 소년부 계절학교 충현기도원서 2박3일간

교회학교 소년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가 종내는 집에서 교회로 다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으로 충현기도원에서 7월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열린다.

소년부(국민학교 5, 6학년)에서는 이를 위하여 74명의 교사들이 대단한 각오로 오개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오고 있으며, 소년부 어린이들을 천국시민으로서,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김주아 전도사를 주강사로 하고, 어린이 교회 교육의 대단한 권위자로 알려진 현도진 목사와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용관 전도사를 특강 강사로 모시는 등... 여러가지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

특히 소년부에서는 현재 소년부에 열광해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 가정의 자녀 중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소년부에 출석하지 못했던 어린이들도 모두 참석하여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계기로 해 주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자라나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바라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잠시 떠나 엄격한 규율 하에서 단체훈련을 받는다면, 활발한 어린이

는 물론이고 부모 슬하에서 청일대며 소극적이었던 어린이들의 성격이 보다 적극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나라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리라 믿어진다.

교회 집합시간은 7월24일(월) 오전9시30분이며 참가회비는 1인당 8,000원이라고 한다. 우리모두 기도의 부탁과 함께 큰 기대를 가져본다.

### 중등부 27회 수양회

중등부(부장/엄필성장로)는 제27회 여름수양회를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한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라거라」(벧후 3:18)라는 주제로 학생 6백명, 교사 85명 등 68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벽기도회, 주제강의, 저녁부흥회로 진행되는 중 수양회의 주강사는 김성윤목사이다.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찬양 이외의 행사로는 「가든파티」, 「팀별모임」, 「풍선터트리기」, 「동서남북」, 「간증」,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되며, 김인철씨의 특별간증, 손종태전도사의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 조정자 집사의 「가슴과 가슴으로」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 충현프리즘

#### ☆ 초등부의 새벽기도회

7월19일 오전6시 소석관 407호엔 초등부(국민학교 3, 4학년) 학생 6백여명이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 어린 학생들은 성경학교 전날에 주의 성전에서 하룻밤을 자내면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고사리손들이 두 손 모으고 기도자세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을 연상케 했으며, 이들의 티없는 바램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납하셨을 것이다. 「다시는 예배시간에 떠들지 않을래요, 기도시간에 눈 뜨고 장난도 안 할래요, 우리의 예배치소를 더럽히지 마나하고 깨끗하게 할께요, 천구들과 뛰어들며 교회미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어느 예쁜 소녀의 통성기도가 듣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케 했다.

그뿐 아니라 어떤 꾸러기 남

학생은 「거짓말한 것, 부모님 말씀 듣지 않은 것, 주일헌금으로 과자 사먹은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의 음성도 들려온다.

이웃을 때부터 교회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신앙생활훈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초등부의 전체 새벽기도회는 평점 만점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수고한 교역자, 교사진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 ☆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청년 1, 2부의 수양회는 이만 열 교수의 저녁집회 강의로 열기가 고조되었다.

청년 기도원의 승려 베겔에서 접채하고 나약해진 현재 젊은이들의 신앙을 일깨워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절대로 불로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의 성경적 견해를 펴 력했다.

부동산투기, 증권투기에 크리

스찬들은 절대로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경적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본주의 경향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이에 편승하거나 조용히 자리를 잡는 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고 땀흘린 댓가를 얻는 기독교 노동관을 강의해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 ☆ 교회당 주변 구석 구석에도 관심을 갖자

아름답고 웅장하며 수려한 우리 충현예배당. 보기만 해도 은혜가 절로 넘친다.

어느 지방교회 장로는 서울에 왔다가 충현교회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미려하고 주위의 겹세마데 동산, 베테스다 못, 소석관(교육관), 선교관 등이 함께 자리한 충현교회 전경

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분에 넘친 칭찬을 했다. 그러나 길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도 눈길의 잘 닿지 않는 구석 구석엔 쓰레기가 놓여 있고, 보기 흉한 적치물들이 군데군데 있다.

특히 본당 지하실, 소석관 뒷쪽, 화장실 부근에 눈길을 돌려 보자.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본 자가 깨끗이 치우는 봉사의 손길이 아쉽다.

#### ☆ 주님 위해 땀흘리는 젊은이를 찾는다

여름방학 중 우리교회와 관계를 맺은 제교회, 지원교회, 위탁교회 등에 여름학교 인도, 여름 봉사활동을 할 투철한 신앙을 가진 젊은이를 전도위원회는 찾고 있다.

일주일간의 봉사기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현의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열심을 가짐이 어떨런지요?



▲ 여름은 더운 계절이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케해주는 생명의 말씀 집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자. -대학부 수양회- 광강-

### 카메라초점



▲ 평신도 선교사인 박행렬 선교사 가족(사모, 자녀)이 지난주간 김포공항을 출발 임지인 서사모아로 출국했다.

##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예배 성경강해 시리즈③



본문 / 요 5:17-23

인간들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대는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는가. 그러나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참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서 침묵만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가 비록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침묵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히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 1.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살아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는가. 내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발걸음과 내 운명을 주장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에드워드 기번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생활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일반 대중에게는 동등하게 진리가 되고, 모든 철학자들에게는 동등하게 다 거짓이 되고, 치안을 담당하는 정치가들에게는 동등하게 효용적인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하나의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특히 종교적인 언어들을 무의미하게 뜻없이 말하고, 뜻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17절). 하나님은 현재 침묵을 지키고 낮잠을 주무시고 뒤로 은퇴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요, 멀리서 우리의 행하는 일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되어드리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숨만 내쉬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를 한 손에 쥐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심장의 고동을 지금도 쥐고 계시고 흑암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

의 죄를 범했지만, 둘째 아담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신 순종의 제물입니다.

## (3) 사랑으로 동일시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무겁고 소중하며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 3. 아들이 행하시는 일

(1)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 "역사를 한손에 쥐신 하나님, 흑암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으신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21절) 살리신다는 말씀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 철학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일등신이고 예수님은 이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들의 권위는 제2차적인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고, 헌금을 드려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땅 위에서 나타나고 하늘에서 나타나고 지금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가를 드려야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사변적인 말이 되어 공론으로만 끝나는 그런 언어가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깨닫힌 은사를 오늘 여러 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자"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고생을 시작해서 고생을 계속하다가 고생 끝에 죽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신가.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교적 언어나 표현들이 전부 상징적인 가치 밖에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개념은 철학자들의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무의미한 관념 뿐이고 합리적인 가치가 없는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말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말인가. 단지 인간에게 심리적인 위안, 혹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입술발원의 말뿐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하신다는 말인가.

오늘 우리가 수많은 종교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적인 언어의 가치와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믿고서 하는 말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은 지금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 2.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 (1) 행동으로 동일시됩니다.

아들이 행하는 일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좇점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17절). 땅 위에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하십니다.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2) 순종하므로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19절). 우리는 스스로 god(작은 신들)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스스로 처리해 버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계를 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

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요 심판의 대상이십니다.

## 하기농어촌전도대 파송

전도위원회는 1989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을 다음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과 용—

## ▲파송예배: 1989년 7월 23일(저녁 찬양예배시)

## ▲파송교회 및 장사

●제1차 파송(1989년 7월 24일~28일)

- ①월림교회(강원도/장사: 김동열목사)
- ②구결중앙교회(강원도/장사: 김광석목사)
- ③천국교회(강원도/장사: 송태근목사)
- ④부원교회(강원도/장사: 김익경목사)
- ⑤내오리교회(경기도/장사: 김해규목사)

●제2차 파송(1989년 7월 31~8월 4일)

- ①장화교회(전남여천/장사: 이원길목사)
- ②대평교회(충남아산/장사: 이양우목사)
- ③용산교회(강원도 정선/장사: 이세열목사)
- ④고양교회(강원도 정선/장사: 김영국목사)
- ⑤성산교회(경기 여주/장사: 김해규목사)
- ⑥대학부 노래전교단(N.M.C.) (부산·전남·소록도)

# 은혜로운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학교 학생들

지난주간, 영아부 ·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 · 청년1 · 2부 여름행사 끝나

영아부

영아부(부장/차신득장로)는 제15회 여름성경학교를 지난 7월17~18일까지 본교회 영아부실에서 가졌다.  
「구원받은 새싹」이란 주제로 학생 254명, 학부모 220명, 교사 40명 등 514명이 참석하여 1부 예배, 2부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순서를 가졌다.  
첫날에는 1부 예배 설교를 “순종하며 자라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연이전도사가 설교했으며, 2부에서는 찬송부르기, 간식, 놀이, 인형극, 그리고 엄마반에서는 주선애교수를 강사로 「유아심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둘째날에는 1부 설교를 “성경 말씀으로 자라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연이전도사가 담당했으며, 2부는 비디오상영과, 엄마반을 위하여 엄필성장로의 「치아건강」에 대한 특별 강의가 있었다.

초등부

초등부(부장/최성현장로)는 제36회 여름성경학교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본교회 유년부실에서 개최했다.  
「도와주는 어린이가 되자」란 주제로 열린 동 여름성경학교에는 48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김경성전도사의 메시지로 진행되었다.  
2부순서로는 육외특별활동으로 미니올림픽, 그룹별 리크레이션 등이 있었고, 인형극 관람의 시간도 가졌다. 또 농어촌교

청년1부

청년1부(부장/윤광일장로)는 제1회 하계수양회를 지난 7월16일~19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 수양회에서는 70여 명의 남·여 회원들이 참석하여 저녁부흥회,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또 특별활동으로는 공동체훈련, 충현부패, 성경야구대회, 체조 및 구보, 체육대회, 캠프화이어 등의 순으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었다.  
저녁부흥회 시간은 청년2부

청년2부

청년2부(부장/손경수장로)는 제19회 하계수양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충현기도원에서 가졌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히브리서 4:14~16)는 주제로 개최된 동 수양회에는 60여 명의 회원과 교사가 참여했다.  
저녁부흥회 시간에는 청년1부와 공동으로 이만열 교수를 강사로 저녁집회를 가졌고, 새벽기도회는 이양우목사(지도교역자)가 담당했으며, 낮특강으로는 장희종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요셉의 생애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송태근목사가 “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불황의 타개”에 대하여 특별 강의를 했다.  
또 주제발표로는 “초대교회 모델연구”를 이준경형제가, “청년기의 신앙”에 대하여 김종필 집사가 각각 담당했다.  
그 이외로 공동체놀이, 반별 모임(성경공부), 1, 2부 연합체육대회, 성경암송대회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유치부

유치부(부장/정광호장로)는 제36회 여름성경학교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본교회 유치부실에서 개최했다.  
「구원받은 새싹」 주제로 약 600여 명이 참석한 동 성경학교에서는 1부 예배는 정연희전도사 설교로 진행했다.

유년부

유년부(부장/윤성철장로)는 제36회 여름성경학교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본교회 유년부실에서 개최했다.  
「도와주는 어린이가 되자」란 주제로 열린 동 여름성경학교에는 48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김경성전도사의 메시지로 진행되었다.  
2부순서로는 육외특별활동으로 미니올림픽, 그룹별 리크레이션 등이 있었고, 인형극 관람의 시간도 가졌다. 또 농어촌교

교회성전에서의 하룻밤기도, 1일 새벽기도회도

꽃반과 열매반으로 나뉘어 분반공부(순종잘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사무엘처럼 자라세요, 예수님처럼 자라세요)와 찬송공부, 성경이야기, 간식, 특화순으로 진행했다.  
또 학부모 특강으로는 주선애교수의 「유아심리」, 엄필성장로의 「치아건강」, 정연희전도사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강의도

특히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잠을 자는 하룻밤 교회당에서의 잠자기, 그리고 1일 새벽기도회를 개최했는데, 600여 명의 (3, 4학년)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합동심 키우기 위한 공동 공작 작업

제36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본교회 소석관 4층에서 개최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양창근전도사와 김연이전도사가 강의를 맡았다.  
분반공부로는 “우리의 길되신 예수님” 그리고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공부가 있었으며, 특별활동으로는 그려붙이기, 특수게임(아와나선교회 진행) 그리고 「나의 십자가」(김연이전도사) 행사가 있었다.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소금”이란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또 새벽경건의 시간에는 김익경목사 인도로 “부르짖는 자의 복”, “영혼의 고백”, “지상명령”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으며, 김해규목사(대학부지도)의 “크리스찬의 경제윤리관”과, 이조

위임목사 동정

이준용 위임목사의 해외여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7월 24일(월)~28일(금) 세계신약학회(아일랜드, 더블린)  
▲7월 29일(금)~8월 2일(수) 세계복음사학회(아일랜드, 더블린)  
▲8월 11일(금)~8월 13일(주일) 워싱턴 북유평화대회(미국 워싱턴)

전도활동 화제

초등부 초청전도대회 막내려  
“앞문 열고 뒷문 닫자” 표어로 진행

약 2개월간 조용하게, 그러나 체계적으로 실시한 초등부 초청전도대회가 지난 7월2일 막을 내리면서 190명의 새로운 어린이가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등부(부장: 최성현장로)는 지난 5월4일 충현기도원에서 교사철야기도회를 시발로 태웠을 뿐이었다.

국민학교 3,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초등부는 “앞문 열고 뒷문 닫자”란 표어를 내걸고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앞문”은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이 앞문을 활짝 열고, “뒷문”인 멸망의 문, 지옥의 문은 굳게 닫아, 한 번 충현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어린 친구들이 모두 다 천국의 문에 들어서게 하자는 운동이다.

초등부는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기도카드를 나누어주고, 전도대상자를 정하여 기록한 후 매일 기도를 하게 하였으며 주일 예배시에는 지도교역자인 양창근전도사와 함께 합심하여 전도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사들은 전도대상자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기도하며 학생 각자에게 권면하고 독려하여 매주일마다 많은 학생들을 데

리고 나오도록 하였다.

5월14일부터 초청전도대회에 대한 광고가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후 그 다음 주일부터는 매주일 20명 이상씩 신입생들이 등록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박종규선생의 전도에 대한 간증과, 박창식선생의 심방에 대한 간증을 통하여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교사회



초등부에 새로 등록한 어린이 190명  
“3학년 김유화 어린이 7명 전도”

보인 “門”지를 통하여 신앙간증과, 전도상황에 대한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는 전도독려를 위해 “전도상패”를 만들어 한 명을 전도할 때마다 별을

하나씩 붙여주어 별 다섯 개를 채우도록 하였으며, 또한 음영과에서는 “앞문 열고 뒷문 닫자”란 주제를 작사, 작곡하여 모든 학생들이 부르면서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번 전도운동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훈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190명의 귀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전도왕으로 뽑힌 3학년 여학생 “김유화”는 7명을 전도하는 열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번 초청전도운동을 통하여 초등부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제적 870명에 출석학생 665명

에 이르게 되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 오더라”(행 11:20-21)

7월 성례식 거행  
학습·세례·입교 등 103명

우리교회는 지난 19일 오후7시 본당에서 7월 성례식을 거행하여 학습 27명, 세례 49명, 유아세례 19명, 입교 7명, 개종 1명, 계 103명에게 예식을 베풀었다.

▲ 세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학민, 이 근, 조희행, 심 철, 김수진, 박수홍, 이용태, 이석원, 김철수, 이용이, 김영목, 김수용, 정상민, 이상옥, 장성희, 권숙자, 조숙기, 마경자, 이현숙, 최은영, 배미영, 장혜숙, 윤경희, 이순정, 류태숙, 김정순, 김세향, 심인순, 김현정, 이영임, 김석연, 이경남, 안춘영, 조은비, 조복자, 양순이, 양미영, 이우경, 한장미, 김삼순, 백선아, 현혜숙, 이옥희, 유현정, 박복금, 임경자, 이순희, 오숙영, 이윤하.

▲유아세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에찬, 이해찬, 성영환, 이준호, 오찬양, 한창민, 이동욱, 정종만, 표세현, 이찬희, 홍승훈, 윤석호, 전지수, 이슬기, 이아란, 조성은, 조선하, 이성은, 김화미.

▲입교인은 다음과 같다.

김동용, 박승진, 김중배, 송묘숙, 조정자, 김신정, 한제신.

▲개종자  
김미영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7월 28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0과 올바른 전도

성경: 로마서 1:13-17

요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찬송: 258, 268, 270장

1. 내가 빛진 자라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전하기를 원하고 힘썼던 바울, 그뿐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하였다. 빛진 자란 반드시 갇아야 할 빛을 지고 있는 자이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알고있지 못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같은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지녔던 것이다. 그는 일찌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고 주께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 이후 그는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구원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다.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최후 부탁의 권면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우리도 이같은 강력한 의무감, 사명감으로 불신자들을 대하고 있는가!

2.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주교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 전파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였다. 그러하기에 당시 복음은 세상의 거리낌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적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까닭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고전 1:18)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이다. 잘 모르는 자들은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복음의 가치를 경시하고 배척하지만 동서양 인종 남녀노소, 빈 부귀천 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이 복음을 마음껏 강조하고 부각시키며 드러나게 해야 한다.

3. 복음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전하기를 원하였다. 회심한 이후 그의 삶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생활이 그 특징이었다. 바울 자신이 전도에 힘썼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이 아닌 전도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구원을 알리셨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복음 전파가 아니면 이 세상은 실로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함께 생각합니다

1. 복음에 빛진 자가 가지는 심정은 어떠한가?(고전 9:16)
2.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3.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공동기도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에 빛진 상태로 있사오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